

RDA Interrobang (184호)
인터넷(www.rda.go.kr)에서
컬러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집필: 장인배 연구사(043-871-5631)
유 진, 이정우, 권기범, 이성우,
김동휘, 김장욱, 현동윤

인삼이 기가 막혀...

- 중국과 미국 · 캐나다 사이에서 -

2016. 11. 2. (제 184호)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 약

I. 나는 인삼입니다.	1
II. 체면 구긴 고려인삼과 종주국	9
III. 시사점	16



RDA Interrobang (No. 184)

The very small but important problem of Korea Ginseng

Jang In Bae · Yu Jin · Lee Jung Woo · Kwon Gi Beom
Lee Seong Woo · Kim Dong Hwi · Kim Jang Uk · Hyun Dong Yu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인테러뱅 제184호 인삼이 기가 막혀...

2016. 11. 2. 발간

장인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ikanet0923@korea.kr
유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yujin8603@korea.kr
이정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enzymmer@korea.kr
권기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giveme@korea.kr
이성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leesw@korea.kr
김동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kimdh@korea.kr
김장욱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k2korea@korea.kr
현동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hyundy@korea.kr

《 요 약 》

1. 나는 인삼입니다.

인삼의 핏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두릅나무과 중 인삼 속(屬)에 속하는 식물로 밝혀졌다. 현재 인삼 속(人蔘屬, *Panax*)에 속하는 식물은 10종 미만이다.

인삼 패밀리 중에서도 경제성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을 비롯한 전칠삼, 화기삼은 최초의 서식지역이 매우 한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약재로 써온 역사로 보나 인삼재배 역사로 보나 인삼의 종주국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확하게 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국 쪽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기원전에 삼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3세기경부터 약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다양한 효능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시의 강대국인 중국에 우호의 뜻을 전하는 공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보면 중국 황실에서도 알아주던 약재라는 뜻이다.

인삼의 인기는 고대 의학 뿐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항당뇨, 항암, 성기능 개선, 노화방지, 두뇌활동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인삼의 인기는 여전하며 최근에는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의 효능들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2. 체면 구긴 고려인삼과 종주국

중국과 일본까지 오매불망 사랑하게 만든 인삼의 위상은 근래에 들어 많이 퇴색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화기삼은 발견 초기부터 수출을 위한 상품으로서 완벽한 매력을 가진 상품이며, 현재는 재배에서부터 수출까지 일관화 된 체계를 갖추어 내수 수요가 거의 없음에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생김새에 따라, 재배연차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분류법이 적용된다. 홍삼은 2000년부터 우리 인삼산업을 이끌어 온 효자 상품이나 최근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스마트, 나노 등의 기술과 임상결과를 결합한 신상품이 준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생산자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인삼은 토지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며 이로 인한 경영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작물이라 농가 경영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수출상품으로서 매우 유리한 인삼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삼산업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3. 시사점

종주국이라는 자부심과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겸허하게 세계 시장에 도전해야 하는 입장이다. 상품의 질과 우수성이 반드시 판매량과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점은 현대의 많은 사례가 증명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역사의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약한 나라간의 연합이 필수적으로 이를 인삼산업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 나는 인삼입니다.

에헴! 나는 이런 식물이야!

- 인삼의 핏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두릅나무과 중 인삼 속(屬)에 속하는 식물로 밝혀짐
 - 인삼이 속한 두릅나무과(오가과(五加))에는 두릅나무, 가시오갈피, 독활, 엄나무, 인삼, 병풀 등 쓸모가 많은 식물군이 포함
 - 현재 인삼 속(人蔘屬, *Panax*)에 속하는 식물은 10종 미만인 것으로 알려짐
 - 학명 '*Panax ginseng*'에서 속명 *Panax*는 그리스어로 '모든'을 뜻하는 *Pan*과 '의약'을 뜻하는 *Axox*의 합성어로 만병통치라는 뜻
 - 그 중 약효와 경제성이 인정되는 인삼은 고려인삼, 중국의 전칠삼(田七蔘), 북미의 화기삼(花旗蔘) 3종에 불과
 - 일본에 자생하는 죽절삼이나 중국에 자생하는 인삼과 유사한 약초들은 인삼이라기엔 이름이 아까운 식물들

왜 미국삼은 화기삼(花旗蔘)이라 부를까?

- ▷ 1784년 최초로 이루어진 미국과 청나라 간 협정에서 미국의 국기를 성화기(星花旗), 미국을 성화기를 쓰는 나라라는 뜻의 화기국(花旗國)이라 한 것이 시초
 -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의 야생삼과 재배삼을 통틀어 화기삼이라 부르고 있는데 북미 대륙이라는 공통점과 캐나다산과 미국산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
 - 서양인이 인삼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청나라 때로 프랑스 선교사 자뚜에 의해 보고된 1713년이며, 1714년에는 영국왕립식물학회지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
 - 1716년 캐나다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 라피토 신부는 자뚜의 보고서 중 '서양에 인삼이 있다면 캐나다일 것'이라는 글귀에 주목하여 현지 원주민들을 고용하고 캐나다 산림을 몇 개월간 뒤진 끝에 진짜로 '화기삼'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

고향부터가 범상치 않지!

- 인삼 패밀리 중에서도 경제성이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을 비롯한 전칠삼, 화기삼은 최초의 서식지역이 매우 한정
 - 대륙으로만 따지만 전 세계에서 아시아와 북미 대륙의 일부분인 딱 2군데이며, 아시아 대륙에서는 동북부가 유일
 - 고려인삼은 중국의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 전칠삼은 중국 운남성, 인도 등지에 자생
 - * 일본에는 죽절삼이라는 것이 있으나 거의 약효가 없어 쓰지 않음
 - 위도 22~48°의 선선한 기후이면서 강우조건과 햇빛의 강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깊은 산림이 있는 지역이 자생적지
 - 화기삼은 신기하게 아시아 대륙에서 고려인삼이 자생하는 곳과 비슷한 북미 대륙 동북부의 애팔래치아 산맥 근처가 자생지
- 우리나라는 약재로 써온 역사로 보나 인삼재배 역사로 보나 인삼의 종주국임은 틀림없는 사실
 - 전 세계에서 경제성이 있는 인삼이 자생할 수 있는 2군데 지역 중 하나이면서 계속 약으로서 이용해 온 역사가 있는 민족
 - 다만, 태권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는 최초의 발상지, 기원지라고 할지라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문제



역사에 등장한지는 좀 되지!

□ 정확하게 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중국 쪽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기원전에 삼이라는 용어가 등장

○ 중국 전한의 원제(기원전 48~33년) 때 사유(史游)가 쓴 급취장(急就章)에 '삼(參)'이라는 글자가 처음 등장

* 급취장의 삼은 소위 '고려인삼'이 아닌 중국 산서성 태행산맥 일대에 자생하던 당삼(唐參)이라 보는 견해도 있음('03 연세대 양정필 등)

○ 인삼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후한의 환제(桓帝, 132~168) 때 왕부(王符)가 완성한 '잠부론(潛夫論)'

- 잠부론 자체는 정치서로 아무 관계가 없지만 당시 지식인들에게 인삼은 명약이라는 공통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

- 처방에 사용된 경우는 장중경의 '상한잡병론'이 최초로, 늦어도 2세기 무렵에는 약재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증거

○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도홍경(陶弘景)이 쓴 명의별록(名醫別錄, 451년)

- 백제에서 양나라 무제에게 삼을 공물로 보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약재로서의 의견을 기록

왕부(83~170)의 잠부론(潛夫論)

▷ 유교에 기반을 둔 정치, 도덕, 경제 등을 내용을 담은 책으로 총 30권이며 중국을 대표하는 걸작 100선에도 선정될 만큼 우수한 학술이론서

- 인삼에 대해 언급된 부분은 '무릇 천하를 다스리려면 진현(眞賢)을 얻어야 한다. 이를테면 병을 다스리려면 양의(良醫)를 얻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병을 다스리려면 마땅히 인삼을 얻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인삼의 귀중함을 비유로 사용

중국에서도 알아주던 몸!

- 3세기경부터 약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다양한 효능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
- 3세기말경 장중경이 서술한 ‘상한론(傷寒論)’에 인삼을 활용한 처방이 처음 등장
 - 외감(外感)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전이 담긴 상한잡병론 총 113편 중 인삼이 배합된 처방이 21편
 - * 장중경은 친척의 2/3를 전염병으로 잃은 기억 때문에 당시의 의학이론을 모아 진단하는 법, 치료하는 법, 약을 쓰는 법을 체계적으로 기록
- 6세기경 중국의 도홍경은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 인삼을 최고의 약(上藥)으로 분류
 - 인삼의 7가지 효능(七效設)을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생김새, 맛, 성분의 특징 등을 자세히 써놓은 첫 번째 문헌
 - *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은 한약에 대한 가장 오래된 본초서적으로 365종의 약물(藥物)을 효능에 따라 상약(上藥)·중약(中藥)·하약(下藥)으로 분류
 - 오장을 보양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고 기록

신농본초경에 기록된 ‘인삼의 7가지 효능’

인삼 칠효(七效)	의미(풀이)
보기구탈(補氣救脫)	원기를 보하고 허탈을 구한다.(원기회복)
익혈복맥(益血復脈)	혈액을 만들며 맥절을 부활시킨다.(혈액순환)
양심안신(養心安神)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안정시킨다.(정신안정)
생진지갈(生津止渴)	진액을 생기게 하며 갈증을 멈추게 한다.(당뇨완화)
보폐정천(補肺定喘)	폐를 보하고 천식을 멈추게 한다.(호흡기강화)
건비지사(健脾止瀉)	위장을 튼튼히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소화기강화)
탁독합창(托毒合瘡)	독을 제거하며 부스럼을 아물게 한다.(피부재생, 해독)

- 당시의 강대국인 중국에 우호의 뜻을 전하는 공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보면 중국 황실에서도 알아주던 약재라는 뜻
- 약초학의 효시이자 고대 약물학의 집대성인 신농본초경의 저자 도홍경은 양나라 황제의 측근으로 인삼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김
 - 저서 명의별록에서 백제에서 공물로 보낸 인삼을 고구려의 인삼, 중국 태행산맥의 상당삼(당삼(黨參) 또는 만삼)과 비교
 - * 도홍경은 자생삼(상당삼)을 삼이라 칭하였으나 후대 학자들에 의해 우리 인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인 당삼(또는 만삼)이라 보고 있음
- 역사서인 양서(梁書)에도 고구려와 백제가 자주 조공을 하였다 하였고, 당(唐)나라 때의 문헌 한원(翰苑)에도 인삼이 언급
 - * 한원 고려기에 '마다산(馬多山)에서 인삼이 많이 산출된다'하였는데 후세 학자들에 의하면 개마대산(개마고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추정되고 있음

중의학과 한의학 모두에 영향을 미친 도홍경

- ▷ 도홍경은 양나라 때의 도사(道士)로 젊은 시절 왕실의 글선생을 한 인연으로 양나라 무제(武帝)의 친우가 되어 여러 가지 조언을 하였다고 알려짐
 - 양 무제가 왕위에 오른 후 산에 은거하고 편지로만 왕래하여 '산중재상'이라는 별명도 있었으며 도교나 역사, 의학서적을 모아 정리하여 큰 업적을 남김
 - 특히 산 속에 은거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전란 등에서 서적과 학문이론 등이 잘 보존할 수 있어서 후대에 귀중한 서적과 이론 등이 전한 공로가 큼

뛰...굳이 자랑이랄 건 없지만... 내가 제일 잘나가!!

- 인삼을 공물로 중국에 바친 이후 점차 인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납, 교역물품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 고려인삼을 공물로 받기 시작한 이후 고려인삼은 양, 수, 당을 거쳐 송, 원, 명, 청까지 중국에서 가장 원하는 공물 중 하나

- 처음에는 고구려와 백제삼이었다가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는 신라삼이 당에, 고려시대에는 송(宋)에 고려인삼을 공물로 보냄
 - * 당시 인삼재배법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고려시대까지는 산에서 채취한 산삼이었으며 신라시대에는 200근 이상, 고려에는 500근을 진상
- 현재 인삼의 명산지 중 풍기인삼은 이러한 공물의 폐단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경우
 - * 공납을 맞추고자 농번기에도 일을 하지 못하고 산에 올라야 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당시 풍기군수인 주세붕 선생이 인공재배법을 개발하여 보급

우리나라 인삼재배의 아버지라 할 만한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 ▷ 조선건국에 반대하여 초야에 묻힌 선비집안에서 태어난 신재선생은 급제 후 여러 요직을 거쳐 풍기에 부임하면서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 첫 번째가 인삼 한 근씩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초의 인삼재배법을 개발·보급하고 추후에는 개성에도 이 기술을 전파한 것
 - 두 번째가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안향(安珦)선생을 모시는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것으로, 후일 부임한 퇴계에 의해 사액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되어 지역의 학풍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

- 일본에서도 고려인삼의 인기는 대단하여 막부에서 교역품목으로 꼭 넣어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음
 - 1728년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인삼 재배법을 자체 확립했으며 인삼과 관련된 속담도 있을 정도

일본과 인삼 이야기 (1)

- ▷ 조선의 인삼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에서 만들어 사용하던 고화폐 ‘인삼대왕고은(人蔘大王高銀)’은 인삼거래전용 화폐
 - 17세기 일본의 겐로쿠시대 때 조선과의 인삼수교로 막대한 양의 은화가 빠져나가 일본 자국 내 은이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
 - 이로 인해 순도가 낮은 화폐(겐로쿠 은)를 발행하지만 조선의 인삼 상인들이 거부하여 인삼 거래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은화를 주조



인삼대왕고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이유?

- 고대 의학 뿐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항당뇨, 항암, 성기능 개선, 노화방지, 두뇌활동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
 - 당뇨병자의 혈당량을 저하시키거나 인슐린 치료환자의 경우 투여량 조절이 가능했으며 환자 자각증상이 개선('80 경북대, 日에히메大 등)
 - 원자력병원 암센터의 추적연구결과에서 홍삼이 암 예방효과를 보이는 기능성 식품임이 인정('95 윤택구, '61 日구마모토大 등)
 - 체내 활성산소 제거기능과 돌연변이 억제, 암세포 증식 억제 기능이 보고('79 스웨덴, 日긴끼大, '88충남대 등)
 - 남성의 발기부전과 정자운동성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쥐에서는 고환의 능력향상 효과가 보고(연세대, 日고베大)
 - 서울대와 연세대, 영국 첼시대 등의 연구결과에서는 노화방지, 노화억제, 항피로 등의 효과가 보고('80)
 - 머리가 밝아진다는 것은 동의보감에서 지적하는 바로 러시아, 불가리아 등의 학자들도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86)
 - 오랜 시간 노동에서도 능률 저하가 늦게 나타났으며, 기억력 감퇴를 방어하고 두뇌 활동을 강화하여 학습 능력을 촉진했다고 함

일본과 인삼이야기(II)

- ▷ 일본 고전소설 '주신구라(忠臣藏)'는 불치병에 걸려 죽을 목숨이었다가 인삼을 먹고 기사회생을 했는데 약값이 감당이 안 되어 다시 목매어 죽는 이야기
- 옛날 일본에선 인삼이 매우 귀해 큰돈을 들여야 먹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돈을 대려면 아이들을 노예나 기생으로 팔거나 큰 빚을 져야 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더라도 막상 사먹자면 죽느니만 못했던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라 함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

- 현재도 인삼의 인기는 여전하며 최근에는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의 효능들도 속속 보고
- 최근 학설에 의하면 우리 인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약리작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항상성 유지 또는 적응성 향상일 것이라고 함
 - 생체가 가지고 있는 비특이적인 저항력을 증대시켜 병적인 상태를 정상화시켜 주는 작용을 의미
 - * 당뇨, 피로, 노화물질생성, 혈압변화, 혈액순환의 이상 등 몸의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인삼의 효능
- 건강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웰빙 트렌드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인삼은 원기회복, 저항성 증가, 다이어트 효과 등 신기능이 부각
 - 인삼에만 있는 사포닌 즉, 진세노사이드의 종류별 효과가 밝혀지면서 이에 맞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도 탄생

인삼에만 있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 진세노사이드는 인삼 속(Ginseng) 식물에만 있는 배당체(glycoside)라 하여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라 부르는데 종류별로 기능이 다른 것이 특징

인삼 사포닌(진세노사이드)	약리 효능
Ro, Rg ₁ , Rg ₂	항염증작용, 혈소판 응집 작용
Rg ₁ , Rb ₂	항산화 작용
Rg ₃ , Rh ₂	항암 작용
Rc, Rf	통증억제 작용
Rb ₁	중추억제 및 신경안정
Rg ₁	면역기능 강화
Rb ₂	항당뇨 작용

II. 체면 구긴 고려인삼의 종주국

지금은 단지 고려인삼의 기원지일 뿐!

- 중국과 일본까지 오매불망 사랑하게 만든 인삼의 위상은 근래에 들어 많이 퇴색
 - 세계 인삼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홍콩 인삼시장에서 크게 좋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한지 오래
 - 1990년 이후 미국,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화기삼의 물량이 크게 늘어 2015년 현재까지 홍콩 수입물량의 75% 이상('16 농식품부)
 - 홍삼 위주의 제품개발 및 홍보로 백삼(건삼)류의 시장점유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
 -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이후 국가단위의 정책지원이 다소 약화 되었으며 연구개발, 기술보급 등에 차질이 발생
 - * 품종육성, 기능성물질 개발 등은 농촌진흥청 등 에 이관되었으며, 식품전문 기업의 참여로 신상품개발 등의 기술면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
 - 세계 인삼의 중심지인 홍콩과 주 소비층인 중화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말레이시아, 중국, 타이완 등에 대한 차별화된 마케팅 부족
 - 미국, 캐나다는 인삼 소비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화계 주민들의 섭취량, 섭취 방법, 선호 포장 등에 대해 특화시킴

인삼이 뭔지도 모르서!

- ▷ 옛날에는 고려인삼하면 알아주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홍콩 인삼시장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나도 인삼이다'라고 우기는 유사상품이 범람
 -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북미 대륙 원산의 화기삼으로 세계 시장의 최소 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중국 원산의 전철삼, 이와 비슷한 베트남삼, 히말라야삼 등이 있음
 - 그 외 인삼과 아무관계가 없는데도 '진생'이라 부르는 시베리아진생(Eleutherococcus Senticosus), 캘리포니아진생, 오레곤진생, 인디안진생, 브라질진생이라는 것도 있음

화기삼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 미국과 캐나다의 화기삼은 발견 초기부터 수출을 위한 상품으로서 완벽한 매력을 가진 상품
 - 1720년 최초로 캐나다의 야생삼을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생긴 이래 1800년대까지 홍콩과 광둥으로 엄청난 양이 공급
 - 오로지 수출목적으로 인삼을 채취하였는데 현지에서 25센트에 구입하면 중국에서 5달러에 팔렸기 때문(1757년 기준, '06 이동필)
 - 1780년부터 1900년까지 120년간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건너간 건조된 야생삼의 물량은 약 2,000만 파운드(약 9,100톤)
 - 1886년 미국 스텐튼의 재배법 개발 후, 1930년대의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중국과 단교 등으로 부침을 거듭하다 1970년대 이후 융성
 - 1차계기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으로 고려인삼이 전혀 시장이 나오지 않은 때, 2차계기는 1974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 1720년부터 수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삼전문회사가 설립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정책이 적극 지원하여 지금에 이름
 - 자신들의 화기삼이 학명으로는 퀸코포리움(Quinquefolium)인 것을 알면서도 화기삼(American ginseng)이라 표기하여 수출

미국은 인삼 때문에 태어났다!

- ▷ 미국 독립전쟁 시발의 대표적인 사건은 식민지에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영국 국적의 선박에 실린 차를 바다에 버린 '보스턴 차 사건'
 -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화기삼 무역을 불허하고 영국의 소버린크라운 회사가 대리하여 독점으로 막대한 이익을 갈취한 것도 큰 원인('95 Kim derek pritts)
 - 당시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한 주(州)들은 대부분 화기삼의 산지였을 뿐 아니라 조지 워싱턴 장군도 깊이 관심을 가졌으며 상당 부분의 군자금을 삼거래로 충당

- 현재는 재배에서부터 수출까지 일관화 된 체계를 갖추어 내수 수요가 거의 없음에도 세계 시장을 석권
 - 캐나다에서는 주생산지인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중심이 되어 규격, 안전 및 상품기준, 판매 지원을 일관화
 -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산양삼 재배 시스템과 유기농법 등을 결합하여 상품가치를 높임
 - 관심이 없는 캐나다인 대신 중국계 이민자를 활용하여 재배, 유통, 수출, 가공 등을 연계시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
 - 미국은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위스콘신주의 마라톤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 특산물화
 - 당일 수확분을 규격화된 상자에 넣어 농가 앞에 두면 협회에서 수량 등을 기록하고 가져가서 유통, 판매, 가공 등을 담당
 - * 한자로는 화기삼농업총회(花旗參農業總會), 영어로는 Gingseng Board of Wisconsin에서 주관
 - 이 두 나라는 중국 현지 회사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요 소비자인 중화계 주민에게 맞는 마케팅을 펼쳐 조기에 시장을 장악
 - 대표적인 사례가 인삼은 열을 올리고, 화기삼은 열을 내린다는 설로 문헌 근거나 연구 결과가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주입시키는데 성공

인삼이 열폭탄이라는데?

- ▷ 현지 사정에 밝은 중국인들이 이익폭이 큰 화기삼을 판매하기 위해 북미의 회사와 공통으로 중의학 지식인 것처럼 포장한 마케팅의 결과물
 - 위스콘신주의 인삼회사 Hsu's의 팸플릿에 한국 인삼은 양이기 때문에 음체질의 사람이 사용하고 여름이 아닌 겨울에 복용하는 것이 최선이며
 - 급격하고 폭발적이므로 장기간 복용은 안 되며 장기간 복용 시 화기삼을 사용 하여야 한다, 한국 인삼은 노약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되어 있음
- ▷ 2012년 농촌진흥청은 중국(길림농업대, 광둥중의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승열(昇熱)작용이 근거 없음 증명
 -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결과 고려인삼의 승열작용이 근거가 없으며, 고려인삼의 당뇨와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 식품으로서의 안전성도 구명

규격도 제각각이고 너무 어려워

- 우리나라의 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생김새에 따라, 재배연차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분류법이 적용
 - 가공방법에 따라서는 생삼(수삼), 백삼, 태극삼, 홍삼, 흑삼으로 구분하고 백삼은 또 직삼, 곡삼, 반곡삼으로 나뉘어 복잡
 - 가공방법은 사실 저장성을 높이거나 병증에 따라 효과가 높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본래 목적
 - 홍삼 위주의 마케팅과 홍보 전략으로 인해 백삼과 수삼의 효능, 사용방법, 가치 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문제
 - 수확한 뿌리의 모양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가, 손상이 적은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에는 천삼, 지삼, 양삼 등
 - 모양이 완전하고 주근의 모양이 좋으며 잔뿌리가 잘 달려 있는 것은 천삼, 잔뿌리가 손상되거나 발달이 약한 것이 지삼
 - 이러한 특징은 중국삼, 화기삼과 고려인삼을 구분하는 매우 좋은 특징이기는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
- * 화기삼의 경우 농가에서 집하할 당시에 특상, 상, 중 등으로 매우 단순하게 등급을 나누어 서로 간에 쉽게 품질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홍삼의 등급

- ▷ 홍삼 등급은 유효 성분과는 관계없이 심미적인 기준으로 머리, 몸통, 다리 부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상품
 - 등급은 천삼>지삼>양삼 순이며 그 외 원형이 절단된 절삼, 잔뿌리의 미삼 등
 - 천삼은 홍삼의 최상위 등급으로 삼의 두 다리가 완전한 것(천삼은 특등급으로 한국인삼공사가 매년 구매하는 전체 인삼 중 0.5%에 해당)
 - 지삼은 홍삼의 중위 등급으로 삼의 한 다리만 남은 것
 - 양삼은 홍삼의 하위 등급으로 삼의 다리가 없어진 것

- 수확연차에 따라서도 1~2년삼, 4년, 6년 등으로 나누어, 재배 연차가 오래될수록 좋은 것으로 홍보
 - 그러나 수출시장에서 화기삼과 중국의 재배삼은 4년근, 산양삼, 장뇌삼 등은 9년 근(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대상이 모호
- 게다가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강화, 풍기, 진안, 금산 등 지역은 너무 다양하고 재배삼, 장뇌삼, 산양삼 등의 명칭도 제각각
 - 밭에서 재배하면 인삼, 인삼 씨를 산에 뿌려 자연스럽게 자란 것은 산양삼, 산삼 씨를 산에 뿌려 자라게 한 것은 장뇌삼
 - * 재래삼이나 산삼의 유전자 분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 설정이 어렵고, 용어는 2013년 산림청에서 산양삼과 장뇌삼을 산양삼으로 통일



홍삼의 다음 주자는?

- 홍삼은 2000년부터 우리 인삼산업을 이끌어 온 효자상품이나 최근 성장이 정체
 - 2011년 1.3조원 시장을 형성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홍삼시장은 5년째 제자리걸음('16 머니투데이)
 -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면서 전체 시장을 이끌어 온 홍삼은 내수 부진으로 현재 매출이 정체된 상태

- 많은 신규사업자가 등장했지만 해외시장 확대 등은 거의 없어 기존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형국

* 1위는 KGC인삼공사의 정관장(70.6%), 농협 한삼인(5.7%), 동원 F&B (2.0%), CJ제일제당 한뿌리 (1.5%), 기타 350여 중소기업체 (20%)

-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도 부진한 형편으로 농협 등에는 재고가 판매량보다 많을 정도

* 1위인 KGC인삼공사의 경우도 재고량은 1조 594억 원으로 매출보다 많으며 농협의 재고량도 2015년 기준 매출보다 500억 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

- 스마트, 나노 등의 기술과 임상결과를 결합한 신상품이 준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생산자 단체의 협조가 필요

- 옛 문헌의 구증구포를 재현한 흑삼, 발효기법의 발효홍삼 등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며 동물실험 등의 결과도 좋은 편

- 최근에는 진세노사이드 뿐 아니라 산성펩타이드, 폴리아세틸렌계, 등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외국삼과의 차별화 연구가 진행 중

- 이런 연구결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가 통일된 규격과 품질관리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야 함

- 산지별 명칭·계량방법, 품질관리의 표준 등이 국제규격과 달라서 신뢰도가 낮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강력한 협의체가 필요

인삼에 있는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이 아닌 물질들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이외에 산성펩타이드, 폴리아세틸렌, 열안전성 단백질 등 다른 물질의 효능도 강력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

- 열안전성 단백질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보고된 결과로 방사선으로 인해 파괴된 세포조직의 복원을 돕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보고('10 인도암센터, 日 시가의대)
- 폴리아세틸렌, 산성펩타이드 등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간을 보호하며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음('11 헬스조선, '13 동아닷컴 등)

지속가능한 인삼산업을 위하여

- 인삼은 토지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며 이로 인한 경영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작물
 - 연작장해에 따른 이동경작으로 재배적지가 계속 줄고 있으며, 신규 진입자(귀농/귀촌자)가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
 - * 연작을 극도로 기피하는 작물로서 연작 시 뿌리썩음병이 발생하므로 밭의 경우 휴작기간은 10년, 논인 경우 6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재배가 가능
 - 인삼재배의 노동력 고령화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 생산의 경영비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
 - 품질경쟁력은 높은 반면 생산비가 중국, 캐나다, 미국보다 각각 5.9배, 2.5배, 3.3배 높은 수준('15 KREI)
- 수출상품으로서 매우 유리한 인삼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삼산업발전방안을 수립·추진('15 KREI)
 - 향후 인삼에 대한 수요는 유기농·청정인삼 등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
 - GAP농가 확대 지원, 산양삼 육성 등을 강화하고 생산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16 연합뉴스)

최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공멸(共滅)을 초래

- ▷ 최근 세계 패션산업계에서는 중저가, 보급의 목적으로 설립한 서브브랜드로 인해 최고급 이미지가 손상되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
 - 영국 버버리사(社), 마크제이콥스, 마이클코어스 등의 브랜드에서는 빠른 시장 확장을 위해 보급형 브랜드를 만들었다가 오히려 고급이미지가 손상되어 망한 사례가 보고
 -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의 '경쟁우위'라는 책에서도 고급이미지를 가진 브랜드가 어떻게 망해 가는가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있어 우리 인삼산업이 취할 방도에 실마리를 던져줌

Ⅲ. 시사점

챔피언의 입장에서 겸허한 도전자의 자세로

- 중주국이라는 자부심과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겸허하게 세계 시장에 도전해야 하는 입장
 - 세계시장을 장악한 미국, 캐나다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철저히 상업적인 마인드로 무장된 사람들
 - *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70년대까지 국가의 주요수입원으로 전매해왔던 역사가 있어 경쟁의식이 약하고 생산, 유통, 판매주체도 완전히 독립적
 - 상품의 질과 우수성이 반드시 판매량과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점은 현대의 많은 사례가 증명
 - * IT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제품이 아니라 마케팅으로 IBM, 야후 등의 거인들을 이기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

지금 필요한 것은 경쟁보다는 협력

- 역사의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약한 나라간의 연합이 필수적으로 인삼산업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강력한 진나라에 대항하게 위해 시도되었던 연횡전략이나 벤츠, BMW에 대항한 중소자동차회사의 연합 아우디 사례가 대표적
 - 세계에 인지도가 높은 정관장을 인삼통합 수출브랜드로 만들어 그 하위에 지리적표시제로 보호되는 지역브랜드를 배치
 - 품질, 규격 등은 정관장이 보증하고 지역브랜드는 중소생산자 연합, 농협, 지역연고기업(대기업)을 엮어 차별화
 - * LG의 냉장고 디오스, 에어컨 휘센, 드럼세탁기 트롬 등 개별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에 대응하여 삼성‘하우젠’이란 단일 브랜드를 만들고 양문형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에어컨의 하위 브랜드를 통합하여 대응한 사례가 있음

RDA 인테러뱅
INTERROBANG

2011. 1. 12. 창간

발행인: 정황근

편집인: 김태현, 조우석, 권남희

발행처: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전화 063-238-0809 전송 063-238-1772

인쇄처: 전우용사춘(주) 02-426-4415

ISSN: 2233-5056

발간등록번호: 11-1390000-002866-03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농촌진흥청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